

후기구조주의 국내수용에 대한 한 反省

후기구조주의는 과연 체제전복적 사상운동인가

강내희

중앙대 교수 · 영문학

1960년대 후반 이후 서구에서 제법 중요한 인문과학 방법론의 하나로 등장한 '후기구조주의'는 그 발상지를 프랑스에 두고 있다. 롤랑 바르트, 자크 라캉,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장-프랑수아 리오타크, 장 보드리야드,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등 주요 후기구조주의 이론가들이 프랑스인이라는 데에서 이 점은 확인된다.

후기구조주의는 그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언어학, 러시아 형식주의, 프로그 언어학과 등에 이론적 기반을 둔 구조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 혹은 극복하고자 하는 사고체계이다. 현재 서구 및 영미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이해방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후기구조주의에 대한 논의가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인문과학계에도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이 방면의 원전을 번역한 책들을 내놓고 있고, 소개를 겸한 저술도 간간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 「세계의 문학」 「외국문학」 등 계간지에서 논문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 글은 이처럼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려고 하고 있는 후기구조주의의 국내수용에 관한 한 반성적 고찰로서 마련되었다.

미국을 통해 '수입'된 프랑스産 思潮

후기구조주의의 국내논의를 지켜보면 한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은 후기구조주의의 발상지가 프랑스인데도 그것에 관한 국내논의는 예외가 없지는 않으나 주로 영미문학 전공자나 미국 유학파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가을 「세계의 문학」에서 다룬 '후기구조주의' 특집에는 영문학 전공자 3인, 불문학 전공자 1인, 불란서 철학전공자 1인, 미학전공자 1인 등 한국인 학자 6인과 M.H. 에이브럼즈, 장 보드리야드 등 외국인 학자 2인의 번역논문이 실려 있다. 얼핏보면 각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 듯하지만 좀더 살펴보면 불문학, 불란서 철학, 혹은 미학전공자 2~3인을 제외하면 굳이 영미문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미국 유학파이거나 미국학자, 아니면 장 보드리야드 논문 경우처럼 영어번역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고 있는 등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여 후기구조주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후기구조주의가 미국이라는

거대 이론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본다. 후기구조주의에 대한 국내논의가 영어계열 연구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로든지 후기구조주의가 프랑스에서 미국에 유출되어 거기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1966년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에서 '인문과학 심포지움'이 열려 바르트, 데리다 등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이 후기구조주의 세력 확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미국에 소개된 프랑스 이론가들 중 특히 바르트, 데리다, 푸코 등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후기구조주의의 미국진출은 더 정확히 말하여 후기구조주의가 미국이론시장에 흡수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종주국으로서 인문과학 이론들을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적 상품을 그 속으로 흡수하고 있는 미국에서 후기구조주의 역시 상품화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후기구조주의의 '상품화'는 후기구조주의 이론이 '후기자본주의'적 논리의 하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와 후기자본주의의 상관관계는 다른 지면을 필요로 하므로 더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기구조주의는 많은 부분 '원산지' 프랑스에서 들여 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산 제품을 미국이 자체의 이론 시장구조에 따라 가공, 생산한 것을 '수입'한 것이다. 어차피 '박래품'인 바에야 직수입된 간접수입된 무슨 관계냐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적잖은 문제가 발생한다. 인문과학적 이론이라면 주제적 전망이 있어야 하는데 후기구조주의가 '박래품'이라는 것부터 꺼림직한 것인데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이 박래품이 가공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정체 파악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체계가건 나름대로 역사적 맥락과 기능을 가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후기구조주의가 프랑스에서 애초에 어떤 연유로 생산되었는지 왜 미국이라는 경유지를 거쳐오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그 '이론적 경로'를 따져보는 것은 후기구조주의를 국내에 수용하고자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다. 후기구조주의의 이론적 경로에 대한 따짐은 후기구조주의를 '인간해방의 이론'이라 추켜세우는 국내 논의가 있는 것을 보아서도 꼭 필요하다. 후기구조주의의 대표적 이론인 해체이론에 대해서 한 수용자는 그것이 '우상타파적'이



국내에서 출간된 후기구조주의 관련도서들.

며 체제전복적'이며, 탈구조주의, 탈모더니즘, 탈이데올로기, 탈전체주의 등 소위 '탈시대'에 걸맞는 '인간해방의 이론임을 자처'한다고 하고 있다. 서구후구조주의에다 성급한 낙관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이 수용태도에서 우리는 후기구조주의가 어떻게 '우상타파적'이고 '체제전복적'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후기구조주의의 '체제전복성'이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적용된다면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후기자본 논리의 하나로서의 후기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에 대한 국내논의가 미국을 경유함으로써 가지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후기구조주의가 그나마 약간 가지고 있는 비판성이 희석된다는 점이다. 후기구조주의는 그 프랑스적 원형으로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화'됨으로써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후기구조주의 자체의 문제와 그것의 미국화에 따른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자.

나는 후기구조주의가 현대사회의 사상운동으로 평가받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체제전복성, 우상타파성의 선전문구와는 관계없이 현실변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반역사적 전통을 답습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 사회변혁에 대한 개량주의적 입장을 지닌 사고체계이다. 따라서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및 변혁에 대한 전망

을 제시할 수 없다. 우리는 후기구조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현실에 대한 의도적 외면이요, 다른 하나는 역사적 주체에 대한 무시이다.

구조주의가 의미는 기호 안에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의미를 지시대상과 분리시켰다면 후기구조주의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의미는 기호 안에 직접 존재하지 않고 기표와 기표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다시 말해 기표와 기표의 구조가 지니는 효과로서 나타난다고 봄으로써 대상세계와 분리된 기호의 정합성마저 부정한다. 구조주의는 기호는 그 기표와 기의 사이에 1 : 1의 대응관계를 가지면서 의미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후기구조주의의 설명에 따르면 의미는 결코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얼음처럼 미끄러운 어떤 표면위로 미끄러지는 현상이다. 예컨대 후기구조주의에서 '고양이'의 의미는 '고양이'라는 기표와 대응해서 생기지 않는다. 기의는 하나의 기표에서 의미를 찾으려 해도 의미가 있다고 믿은 기표가 벌써 다른 기표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미끄러짐질을 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의는 그것이 얽혀 들어간 기표의 다양한 사슬들 속에서 변화를 겪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문자체계 혹은 기호로써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재현 이데올로기'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제 진실한 의미의 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기구조주의는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정한 반영

우리에게 후기구조주의는

수용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후기구조주의의 사회학

혹은 정치학이 필요하다.

후기구조주의가 우리사회에서

소개되고 통용되고 있는 사실의

현실적인 의미, 곧 그것이

어떤 집단이익을 위해 복무하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을 이론적으로 외면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는 후기구조주의는 주체해체론을 주장, 역사적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인간을 도외시해 버린다는 점이다. 주체는 이미 구조주의에서 역사적 실체가 아닌 사회적 기능으로 해석되어 그 실천적 한계가 주어졌다. 후기구조주의에서 주체는 아예 해체되어 버린다. 예컨대 라캉의 설명에 따르면 주체가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받으려면 상징적 질서인 언어체계 안에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주체는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말하는 '나'와 말 가운데서 대변되는 '나' 사이에 동일성의 원칙이 깨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는 끝없이 부정되고 주체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기 동일성을 상실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체관 안에서 역사적 실천을 해낼 주체적 인간형이 나올 수 없다. 어쩌면 이 주체이론은 다국적 기업이 개별민족 혹은 국가단위를 초월, 최대 이익을 올리도록 하는 후기자본의 논리에 걸맞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민족모순의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주체란 해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쟁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의 현장이 사라진 미국식 이론

이제 후기구조주의의 이론적 경로를 다시 살펴보자. 후기구조주의는 그 나름의 역사적 필연성이 없지는 않다. 앞에서 인용한 수용자의 말대로 그것은 일반 이상타파적이고 체계적 반복적인 면을 지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적은 후기구조주의 발생지인

프랑스의 경우에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 후기구조주의는 1968년에 일어난 프랑스의 '5월 학생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세대가 서구시민사회의 권력을 장악해 오던 부르주아 세력에 대해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던 때다. 그러나 이 학생운동은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체제에 대한 도전이 강력하게 진행되긴 했으나 그 도전은 거대한 권력에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후기구조주의는 이때 있었던 체제도전 및 실패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상적 움직임이다. 따라서 그것은 부르주아 지배세력에 대한 증오와 혁명실패에 따른 환멸 내지 당혹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결과 사회변혁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전체체제에 대한 공략보다는 푸코가 형무소 제도문제, 병원제도, 성의 문제를 취급하면서 보여준 것처럼 '소규모정치' 따위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여기서 혁명에 대한 열망과 실패에 따른 좌절이 동시에 어우러져 있는 실천적 현장을 눈앞에 그려내어야 한다. 후기구조주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다다른 골목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후기구조주의의 권력해부와 체제비판의 전통은 그 한계를 안은 채 그래도 상당부분 서구 인문과학계 안에서 한 건강한 전통으로 남아 있다. 예컨대 테리 이글턴 등 영국의 신좌파 인문학자들이 후기구조주의를 이용하여 전통적 지배논리를 비판하고 특히 여러 정치적 입장들과 연대하여 페미니즘이나 마르크스주의의 비평과 접촉되어 사회억압구조에 대한 새로운 독해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유출되어 실천의 현장이 사라지면서 그나마 있던 비판성마저 희석화하고 만다. 물론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실천지향적인 수용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폴 드 만, J. 힐리스 밀러, 조프리 하트만 등과 같은 소위 예일학파가 미국 후기구조주의의 주종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나면 실천보다는 유희적인 요소가 후기구조주의의 특징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미국식 후기구조주의의 유희적 요소는 이미 테리다의 해체이론 자체에 내재해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테리다 자신은 유희를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플라톤 이래 엄숙

함이나 장중함을 주조로 하여 발전해 온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을 생각할 때, '형이상학적'인 '말 중심주의' 등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그와는 다른 글쓰기의 형식을 보여주고자 한 테리다의 이 변명은 어느 정도 성공할 점이 있다. 그러나 하트만이나 드 만이 수용하여 미국에 퍼뜨린 해체이론은 테리다 자신도 마뜩잖아 할 정도로 지나치게 유희일변도로 나간 것으로 평가받는다.(특히 '에일 마피아'의 대부분 알려져 있고 '진실은폐의 불가피성'쯤으로 부를 만한 이론을 펼친 드 만이 그의 '철없는' 청년시절이었던 2차대전 중 반유대주의로 점철된 글들을 벨기에 신문에 근 2년간이나 기고했다가 미국으로 이민한 후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식 후기구조주의의 유희는 책임회피적 기만성마저 있다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후기구조주의 가운데 이 유희적인 후기구조주의 전통이 분명히 있다. 미국식 후기구조주의는 후기구조주의가 원래 지녔던 '개량주의적' 요소마저도 없애버린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식 후기구조주의는 개량주의적인 프랑스 후기구조주의마저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내현실에서 나와야 할 근본적 인문과학 방법론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후기구조주의는 담론, 법률제도, 지식체계, 성 문제 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들을 주요 탐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부구조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 아니다. 미국식 후기구조주의는 이데올로기 기제의 억압성에 대한 실천적 탐구조차 외면함으로써 사회구성의 근간인 하부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봉쇄한다. 또한 후기구조주의는 집단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위에 서서 실천이론을 전개한다. 푸코가 '소규모정치'를 주로 다룬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의 정치, 즉 집단적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희망을 버려서도 안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인문학계에서 필요한 전망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진보적인 세력인 노동자들이 제시하는 세계관일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에 이 노동자 세계관이 있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후기구조주의 논의는 이런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플라톤의 표현을 원용하자면 현실에서 두걸음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변혁이 절실한 현실에 대한 실천은 커녕 아직 달성되지도 않은 개량주의적 국면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채 그저 모든 체제는 억압적이라고만 보고 유희에 빠진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이상승배우 체제옹호이리라.

모든 이론은 현실 속의 특정한 입장에서 나오며 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휘황한 논리로 무장한다. 후기구조주의 이론들이 이처럼 무장된 것이라면 그것들의 이론적 '치밀함'과 '정치함'은 그 특징이기는 하되 수용자에게는 파악해야 할 책략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후기구조주의는 수용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후기구조주의 사회학 혹은 정치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후기구조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소개되고 통용되고 있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 즉 그것이 어떤 집단이익을 위해 복무하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8000원
전화문의: 732-1431~3